

“아내와 세 아이들 보면 그냥 웃음...행복, 참 쉽죠?”



‘예능 강자’ 백종원, 그가 말하는 맛과 삶

#푸근한 방송인 #체형 요리예능의 달인
#욕쟁이 #아내 소유진 #게임 #세아이 아빠

방송인의 모습으로 더 익숙한 요리연구가이자 외식사업가 백종원은 “전파의 영향력을 빌려 외식문화의 질을 높이고 싶다”고 했다. 그가 쉼 없이 활동하는 힘의 배경은 단연 가족이다. “아내 소유진과 세 자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의 기운이 피어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더본코리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근한 이미지. 오프라인의 여러 음식점을 거쳐 TV와 유튜브로도 퍼져가고 있는 영향력.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추진력. 백종원(53)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요리연구가이자 외식사업가 그리고 연기자 소유진(38)의 남편이다.

현재 방송인으로서 맹활약하며 시청자 공감을 얻는 체험 방식의 요리 예능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그는 연일 빼곡한 일정표를 채워가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 만큼 만나기 어렵다는 백종원을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그의 사무실에서 마주했다.

● “방송 통해 외식업 성장 돕겠다”

요리전문가답게 백종원의 책상은 요식업 관련 서적으로 뒤덮여 있었다. 책장에는 각종 상패도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사무실 유리문 밖으로는 직원들의 바쁜 모습이 훤히 보인다. 그의 ‘진짜’ 일터의 풍경이다.

TV 속 백종원은 2015년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시작한다. 당시 그는 ‘슈가 보이’ ‘백주부’ 등 애칭을 얻으며 큰 화제를 모았다. 푸근한 인상과 귀에 착착 감기는 중저음 사투리의 입담으로 시청자에게 다가갔다. 현재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tvN ‘고교급식왕’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등

을 포함해 유튜브 ‘백종원의 요리비책’이라는 채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정말 쉴 틈 없이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뭐든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방송 출연 후 주변 시선에 마음 편히 식당에 가지 못한다. 음식을 먹는 순간 공기의 느낌을 좋아한다. 왠지 지끈거리는 분위기와 함께 먹는 사람의 표정 등을 보면서 먹을 때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 부분을 직원들에게 강조하는데 정작 나는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육안하는 게 제일 힘들다. 하하!”

최근에는 유튜브도 시작해 24시간을 쫓아가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처럼 ‘수위 조절’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가장 편하다고 웃는다. 스스로 “의외로 입이 상당히 거칠어 육도 잘 한다”며 깔깔 웃음을 터뜨린다.

“유튜브라고 말을 막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방송보다는 덜 신경 쓰이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 동기들이 TV를 보고 변했다고들 하는데, 비속어가 방송에 나갈 순 없지 않나. 잘 잘라준 편집의 힘이다. 하하! 실시간 소통이 가장 큰 목적이다. 소통하며 잘못된 레시피를 바로 잡아주고, 새로운 레시피를 공개해 좀 더 편안하게 대중과 이야

“방송·유튜브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외식업자·소비자들에 도움되고파 다음 목표 ‘외국인 유튜브 키우기’ 한국 음식문화가 관광상품 되는 것 유명해서 힘든 점? 욕 줄이기 하하!”



기하고 싶다.”

하지만 백종원이 TV 출연에 멈추지 않고 유튜브에도 발을 들여놓은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었다. 외식시장의 확장이다.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전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그는 “그 힘을 빌려 외식업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나를 통해 외식문화의 질이 좀 더 높아지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그의 머릿속에서는 ‘외국인 유튜브 키우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접한 음식 정보를 자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한국 음식문화가 관광상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품는다.

● “아빠·남편으로 있는 시간이 즐거워”

백종원은 2013년 1월 소유진과 결혼했다. 2014년 아들 용희 군, 2015년 딸 서현 양, 지난해 2월 딸 세은 양을 품었다. 일하랴 방송하랴 아이들과 지낼 시간도 풍족하지 않아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거나, 골프 치고 싶은 마음들이 여유가 없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거 같아 결혼하기 3년 전 골프를 끊었다”는 그는 “결혼 전에 10시간 넘게 해왔던 게임은 끊지는 못했고, 가끔 아주 조금씩 한다”고 했다.

“결혼 후 생활패턴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한 것 같다. 예전에는 나를 꾸민다고 꾸며 브랜드 옷도 많이 사 입었다. 좋은 브랜드만 산다고 주변에서 ‘베스트 드레서’가 아닌 ‘베스트 드레스’라고 불렀다. 지금은 아내가 사주는 것만 입고, 결혼하고 외모도 ‘용’ 됐다. 하하!”

덕분에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크다. 웬만하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만, 부득이할 경우 자신의 역할까지 대신하는 아내가 그렇게 예뻐 수가 없다. 서로의 직업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다고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는다며 고마워한다. 그의 집 한쪽 벽에는 전시회 나들이 등 가족 일정 계획표가 붙여져

있기도 하다.

백종원은 아내를 향해 “예뻐 죽겠다”며 “나한테는 큰 애 같다. 첫째가 둘째 같고, 행동 하나하나가 매력적이다.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며 미소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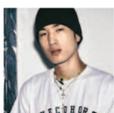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행복하다. 행복이 무엇이고,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만족하며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살면 나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행복한 기운이 피어나는 것 같다.”

백종원 기자 bsm@donga.com

? 백종원 ▲1966년 9월4일생 ▲1989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1994년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2013년 1월 연기자 소유진과 결혼 ▲2015년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통해 본격 방송 출연 ▲이후 ‘집밥 백선생’ ‘한식대첩’ ‘먹고 자고 먹고’ 등 ▲2016년 SBS ‘백종원의 3대 천왕’·SAF 연예대상 특별상 ▲2017년 SBS ‘백종원의 푸드트럭’·연예대상 공로상 ▲2019년 ‘백종원의 골목식당’ ‘고교급식왕’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출연 중

연예뉴스 HOT 5

방탄 비하했던 비프리, 6년만에 사과



과거 그룹 방탄소년단을 공개적으로 비하한 래퍼 비프리(최성호)가 6년 만에 사과했다. 비프리는 14일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과 팬들에게 내가 일으킨 감정적인 고통에 정말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 행복을 빈다”고 밝혔다. 2013년 비프리는 서울 상수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김봉현의 힙합초대석 1주년 공개방송’에서 함께 출연한 방탄소년단의 RM과 슈가에게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힙합이냐”, “무대에서 여자 같이 화장·분장을 하는 게 힙합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음악을 하다가 아이들이라는 유혹에 빠졌냐?”고 비난했다.

이혼절차 송혜교, 해외서 바쁜 행보



남편 송중기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송혜교가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혜교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화장품 행사에 이어 12일(한국 시간) 오후 프랑스 모나코에서 열린 한 유명 브랜드 전시회에 참석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모습도 송혜교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은 중국 연예매체와 각종 SNS를 통해 공개됐다. 이날 송혜교는 흰색 레이스로 장식된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몬스타엑스, 4번 연속 ‘골든디스크’



그들 몬스타엑스가 일본에서 발표한 싱글 ‘엘리게이터’(Alligator)로 네 작품 연속 ‘골든디스크’에 뽑혔다. 최근 일본레코드협회에 따르면 몬스타엑스는 누적 10만 장 이상 판매된 싱글 음반에만 주어지는 골든디스크 인증을 획득했다. 6월 현지에서 발표한 ‘엘리게이터’는 15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몬스타엑스는 앞서 ‘스포트라이트’와 ‘리빙 잇 업’, ‘숫 아웃’에 이어 4번 연속 인증을 받았다. 현지에서도 매우 드문 일로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다니엘, 25일 솔로가수 정식 데뷔



그들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25일 솔로 가수로 정식 데뷔한다. 소속사 LM 엔터테인먼트 측과 전속 계약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이던 강다니엘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데뷔 일정을 공개했다. 새로운 1인 기획사 커벳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타이틀곡 ‘늑대와 앨범 재킷 사진, 뮤직비디오 등 촬영을 마치고 현재 퍼포먼스 준비에 한창이다. 해외 유명 안무가들과도 작업하며 호흡을 맞추고 있다. 새 앨범 프로듀싱은 레이블 디바인체널의 CEO이자 대표 프로듀서 임광욱(Kei Lim)이 맡았다.

선우선·이수민감독, 비공개 결혼식



연기자 선우선(정유진·44)과 11살 연하의 이수민 무술감독이 14일 결혼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 전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을 늦게 하는 만큼 예쁘게 잘 사는 모습 보여 드리겠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선우선은 “한 액션영화에 출연하기 위해 액션스쿨에 다니다 남편을 만났다”며 “처음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줄 몰랐다. 솔직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예식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들은 8월 신혼여행을 떠난다.